

일감 스님의
암각화 기행

하늘사슴



바양울기, 슈베트하이르항

타왕복드 성산(聖山)이 멀리 보이는 신비로운 곳에 '하늘사슴' 암각화가 있다. '하늘사슴'이라는 이름은 내가 붙인 이름이고, 보통은 '스키타이' 사슴이라고 부른다. 스키타이 사슴 암각화는 여러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숫자도 적지 않다. 그 중 이 암각화가 단연 눈에 띈다. 이 암각화는 뾰족하게 솟은 삼각형의 등, 새 주둥이, 그리고 화려한 뿔 등 스키타이 사슴의 특징을 잘 갖추고 있으며, 크기도 크고, 주변의 이야기들도 잘 꾸며진 암각화다. 이 사슴의 가장 큰 특징은 사슴의 주둥이가 새의 부리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늘이 땅에 내렸다

춥고 배고픈 사람들 불쌍히 여겨
성품 순한 사슴으로 땅에 내렸다

눈에 잘 띄라고 화려한 뿔을 달았고
줄만 던지면 쉽게 잡혀 주었다

피와 살은 배고픔을 채워주었고
부드러운 가죽은 추위를 막아 주었다

구멍뼈는 악기가 되어 삶을 위로하였고
정강이뼈는 아이들의 장난감이 되었다

종래에는 큰 뿔을 날개 삼아
넓적부리 새가되어 하늘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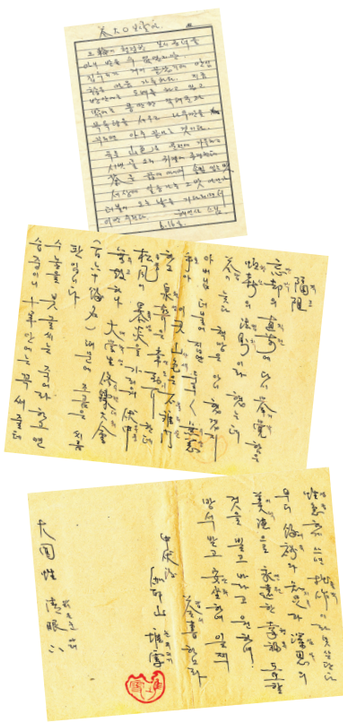
뭇 생명들의 애달픈 염원을 안고
다시 또 내려올 하늘이 되었다

아… 하늘 사슴이여



대원성보살의
선지식 '산중서신'
⑨ 일타 스님 5

마음 쓴다는 것, 세상 나눠 갖는 일



〈서신 1〉
격조

망각의 직전에 다시 거각함은 항신의 법칙이라 했는데 답이 늦다 책망은 아니 했겠지. 아버님과 더불어 집안 두루두루 무양호아 이곳 산색은 불이문하고 천승은 상도이 한데, 송풍이 폭염을 가리워 복중 무고하나 대학생 수련대회 160여 명 때문에 조금은 씨름판입니다.

수농을 붓글씨는 죽어라하고 연습 중이니 10년 안에는 꼭 써줄 테다. 성급하게 쓰면 졸작이라 못 쓴단다. 부디 여유와 지족과 심사의 미덕으로 영원한 행복 도모할 것을 빌고 바라고 원하며 방석 받고 안좌하여 일찍 답서하노라. 중추절 가야산 퇴설(눈무더기)

그 해에 손뜨개질로 방석을 만들어 인연 있는 스님들께 선물을 했었다. 일타 스님께도 보내드렸는데 스님께서 방석을 받으시고 나서 보내신 서신이다.

평소 같으면 선물을 받으시고 바로 답장을 하셨을 텐데 이 서신은 선물을 받고나서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보내셨다. 스님께서는 선물에 대한 인사를 바로 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계속 걸려있었던 것 같다. 서신 첫 머리의 '격조'라는 말에서 스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잘 알 수 있었다.



일타 스님(왼쪽)과 대원성보살이 함께 웃고 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을 터. 이래저래 설명 없이 '격조'라는 말 한 마디가 여러 말을 대신한다. 부처님이 들어 보이신 한 송이 연꽃처럼 스님은 '격조'라는 말로 대신하셨고, 나는 구구절절 많은 말에서보다 더 많은 뜻을 읽을 수 있었다.

인연에 시간이 쌓인다는 것은 그런 것이었다. 특히 큰스님들과의 인연에 시간을 쌓는 것은 그 자체가 공부였다.

서신의 글 한 자에 마음이 한 참을 머물고, 그 고요한 시간에서 마음은 깊어간다. 비록 한참 만에 받은 서신이지만 서신이 있기까지 스님은 늘 내게 안부를 준비하고 계셨고, 그렇게 내게 온 답장에서 나는 그 동안의 마음을 볼 수 있었다. 인연이 깊어간다는 것은 그런 것이었다.

〈서신 2〉
대원성 보살아,

삼륜(三輪)이 청정한 보시공덕을 아니 받을 수 없었지만 집수리가 거의 끝났기에 안심찮은 마음 가득하다. 지금 방안에는 도배를 하고 있고 밖에는 콩만 한 쪽 대문과 목욕탕을 세우고 나무 깐을 꾸리면 아주 끝나는 것이다. 푸른 산색(山色)은 문전에 가득하고 시냇물소리 귀결에 종쟁한데 차(茶)를 끓여 마시며 솔잎 씹는 맛 세상에 일등 가는 그 맛 아닌가! 더불어 오는 날을 기다리면서 이만 줄인다.

–6. 16 해인사 스님.

일타 스님이 지족암 계실 때다. 보수불사가 있었는데 연꽃모임 회원들이 불사에 동참했다. 불사가 거의 끝나갈 때 주신 서신이다. 이때도 마음이 조금은 급하셨던 것 같다.

고마운 마음을 하루라도 빨리 전하고 싶었던 것 같다. 불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서신을 주신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불사가 모두 끝난 후 천천히 주셔도 될 일이지만 스님의 마음은 급했던 것이다.

그렇게 스님은 써야할 마음 앞에선 하루가 여삼추였던 것이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쓴다는 것은 세상을 나누어 갖는 일이다.



| 공모주제 - 자유
- 핸드폰 카메라로 찍었지만 너무 잘 찍어서 혼자 보기에 아까운 사진
- 사찰, 경내, 꽃, 하늘, 도반, 순례, 포행, 인물, 동물등 재미있는 스토리가 담긴 사진
-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고 격하게 공감하고 싶은 사진 또는, 스님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평범하고도 훈훈한 감동 있는 사진 등

| 출품방법
- BTN홈페이지에서 "아주 특별한 폰사진 공모전" 페이지를 통해 업로드 접수

| 출품규격
- 휴대폰으로 촬영한 3Mb 이상 10Mb 이하의 JPG파일
- 1인 10점까지 가능(출품비 없음)

※ 1인당 응모사진이 10장이 넘을 경우 자동적으로 접수가 빠른 순대로 10장까지만 정식 접수됩니다. 이후는 응모작에서 제외

| 공모일정
- 응모기간 : ~ 6월 30일 / 심사발표 : 7월 말 BTN 홈페이지(개별통보)

| 공모대상
- 국내 사찰에 거주하고 있는 스님들만(외국인 스님 포함) 응모 가능합니다! (일반인은 응모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시 상

BTN사장특별상 (1명)	성지순례 상품권(130만원 상당)
대상 (1명)	상금 300,000원
금상 (3명)	상금 200,000원
은상 (4명)	상금 150,000원
동상 (5명)	상금 100,000원
가작 (10명)	상금 50,000원
입선 (10명)	20,000원(기프티콘)

| 문 의
- 카카오톡 검색창에 [한국불교대표방송 BTN] 검색, 친구추가 후 문의
- 또는 btnucc@btn.co.kr로 문의

[NOTICE]
- 출품작은 국내외 타 공모전에 출품 및 발표되지 않는 순수 창작 사진이여야 하며, 입상작의 출판권, 저작권은 출품자와 BTN이 공유합니다.
- 출품 작품의 초상권과 저작권 분쟁에 관한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 수상 결격사유 시 수상취소와 지급된 상금은 반환/중복시상은 하지 않고 순위가 높은 분야만 시상하며 입상작은 심사 발표일로 5일 이내 지정된 메일 주소로 원본파일 제출.

[수상결격사유]
- 다른 작품을 표절, 합성,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경우.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 국내 외 관련법규에 의한 법정분쟁 있는 경우.

BTN 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tv 30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케이블문의:02)3270-3300